

12월 10일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

복되신 동정 마리아 공통 573면.

제1독서

〈보십시오,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.〉

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7,10-14; 8,10ㄷ

그 무렵 ¹⁰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.

¹¹ “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.

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,

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것이나 청하여라.”

¹² 아하즈가 대답하였다.

“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.”

¹³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. “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!

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

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?

¹⁴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.

보십시오,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

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.

^{8,10}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

화답송

루카 1,46ㄴ-47.48-49.50-51.52-53.54-55(◎ 49)

◎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,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.

또는

◎ 영원하신 성부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는 복되시다!

○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

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. ◎

○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.

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.

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

그 이름은 기록하신 분이시다.

- ◎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, 그 이름은 기록하신 분이시다.

또는

- ◎ 영원하신 성부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는 복되시다!
-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
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.
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
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. ◎
-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
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.
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
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. ◎
-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
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
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
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. ◎

복음 환호송

루카 1,28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, 기뻐하소서.
주님께서 함께 계시니,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.
- ◎ 알렐루야.

복 음

〈보라,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.〉

- ✱ 루카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.

1,26-38

그때에 ²⁶ 하느님께서서는

-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,
²⁷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.
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

- ²⁸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.

“은총이 가득한 이여, 기뻐하여라.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.”

- 29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.
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.
- 30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
“두려워하지 마라, 마리아야.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.
- 31 보라,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.
- 32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.
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,
33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.”
- 34 마리아가 천사에게, “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,
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” 하고 말하자,
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.
“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.
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,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.
-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.
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.
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.
- 37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.”
- 38 마리아가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
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”
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.
주님의 말씀입니다.

* 이 전례문은 2020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도좌 추인(2020년 5월 8일, 경신 성사성, Prot. N. 172/20)을 받았습니다.